

## PA-28

## 전북지역 주요 벼 품종 재식밀도 및 이앙시기에 따른 생육 및 수량성 변화

김효진<sup>1\*</sup>, 유영석<sup>1</sup>, 강영호<sup>1</sup>, 조대호<sup>1</sup>, 이덕렬<sup>1</sup>, 김주<sup>1</sup>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413, 농업기술원 작물식품과

## [서론]

최근 벼 농사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재배법이 절실한 실정이다. 드문모심기는 관행 농법 대비 농업생산비가 절감되고, 모판수 감소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고령화에 따른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효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. 그러나 품질저하 및 수량감소의 우려도 있는 실정이다. 따라서 본 연구는 벼 드문모심기가 품종별 이앙시기에 따른 생육 및 수량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.

## [재료 및 방법]

본 시험은 2021년 전북농업기술원의 현지 시험포장(익산)에서 수행하였다. 품종은 수중형인 신동진(330g/모판) 및 수수형인 십리향(300g/모판)의 어린모를 사용하였다. 이앙은 5월 20일, 6월 5일, 6월 20일에 각 재식밀도 37, 50, 60, 80주/3.3㎡로 4~5본씩 기계이앙을 실시하였다. 기타 재배관리는 농촌진흥청 벼 표준재배법을 따랐으며 이앙일 및 재식밀도별 품종에 따른 생육, 수량구성요소 및 쌀수량 등을 조사하였다.

## [결과 및 고찰]

이앙 시기에 따라 5월 20일 이앙은 재식밀도별(37, 50, 60, 80주/3.3㎡) 수확기의 주당 수수는 신동진이 각각 14-22개, 십리향은 17-30개였으며 평균 등숙비율은 신동진은 73.4.-85.8%, 십리향은 80.8-82.6%로 나타났다. 6월 5일 이앙은 주당수수는 신동진이 각각 16-32개, 십리향은 19-33개였으며 평균 등숙비율은 신동진은 61.2.-75.6%, 십리향은 79.4-83.5%로 나타났다. 6월 20일 이앙은 주당수수는 신동진이 각각 14-30개, 십리향은 18-34개였으며 평균 등숙비율은 신동진은 49.4-66.3%, 십리향은 71.8-78.3%로 나타났다. 10a당 쌀수량은 재식밀도가 낮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, 십리향의 경우 적기 이앙(6월 5일) 85주/3.3㎡에서, 신동진은 조기 이앙(5월 20일) 85주/3.3㎡에서 수량이 가장 많았다.

\*Corresponding author: E-mail, khj0819@korea.kr Tel. +82-63-290-6073